

제419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11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긴급 현안질의
-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임오경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9
2.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9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임오경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개회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관광 분야와 K-콘텐츠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관련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과 출석요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관 실국장, 관계 기관장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경고하는 등 현재 상황의 위중함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긴급하게 정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관 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태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최지우 고발 요청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최지우가 어떤 작자냐면 김건희가 황제 조사 갔었을 때 휴대전화는 원격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는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했던 데 대해서 변호했던 사람이고 김건희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어제 자 보도를 보면 ‘윤석열 측은 최근 최지우와 사건 수임을 논의했다. 최지우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법률대리인이다’.

이런 최지우가 지난 우리 문체위 상임위에 와 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KTV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조치와 관련해서 KTV가 조치하는 게 낫겠다고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그 논의를 했고 KTV에 통보를 했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법률비서관 소속이었고 그냥 그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적인 조언만 했습니다. KTV 실무자들이 저한테도 좀 묻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기본적으로 발언 자체에도 위증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 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형사고소 법률대리인을 KTV로부터 수임한 최지우의 문제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의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최지우가 전체회의에 나와 가지고 거짓말한 그 발언 자체도 위증이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위반까지 하는 위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최지우에 대해서는 고발 요청을 해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KTV 법률대리인이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변호사 최지우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박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위원입니다.

어제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반헌법적인 궤변과 망발로 가득한 정부 호소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는데 소관 부처 장관이고 또 소관 부처의 상임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회의의 속기록에, 유인촌 장관의 이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호소문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호소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인데 속기록에 정확히 남겨서 이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을 반드시 후세에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따 추가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을 선전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호소문을 주도한 자들은 향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염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전재수 위원장님께서는 유인촌 장관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는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논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먼저 오늘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12월에 소청심사소위원회가 10일 날 잡혀 있었고 11일 날 오늘은 전체회의가 미리 여야 협의하에 저희가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야 협의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이 말은 꼭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했고.

반대로 교육위 같은 경우는 오늘 11시에 여야 협의 없이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차관은 출석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참석을 지금, 출석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시추에이션입니까?

이 계엄 선포가 떨어진 이후로 지금 문체부장관은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불출석한다? 이것 유인촌 장관에게 다시, 저희가 이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겨서……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가 잡혀 있었고 거기에 피감기관들까지 오늘 출석해서 현장의 얘기를 좀 더,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처럼 오늘 회의가 잡힌 것처럼 지금 문체부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의사진행발언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먼저 듣고 제가 추가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조계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제 유인촌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포고문과 결을 같이하는 호소문이었습니다. 내란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중죄이며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유인촌 장관에 대해 강력한 사과 촉구와 책임질 것을 권고하기 바랍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에 자제해 달라는 호소를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과 국회를 향해 총부리를 겨눴는데 무엇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불출석하여 자리에 없지만 유인촌 장관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현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온 코리아 리스크의 주체는 괴와 목숨 바쳐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과 그에 부역한, 동조한 부역자들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과 위기가 야당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내란의 후견인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국민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매일 여의도에 울려퍼지는 수십만 국민의 윤석열 탄핵의 절규가 안 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목소리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야당의 노력을 내란수괴 윤석열 감싸기 프레임으로 왜곡하지 말아 주십시오.

유인촌 장관은 내란 사태에 대한 호소문에서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헌법과 법률에 따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이나 탄핵 그리고 부역자들의 엄정한 처벌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행 위험국 대한민국, 이 수치스러운 낙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남긴 처참한 흔적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칭송받으며 문화강국, 관광강국으로 자리잡았던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내란 시도로 인해서 여행 위험국가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응원봉을 들어 보이며)

제 손에는 BTS의 아미밤이라는 응원봉이 지금 있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케이팝에 열광하던 응원봉은 윤석열 탄핵을 열망하는 응징봉이 되었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어야 할 우리 MZ 세대들은 민주세대가 되어 혹한의 거리에서 탄핵을 외치며 국회를 지켜 주고 있습니다. 국회 앞 광장을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초래한 대한민국 리스크를 세계인이 감동하는 K-민주주의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바랍니다. 국민의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윤석열 탄핵 명령을 받들기 바랍니다.

헌법 제46조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헌법이 부여한 기본 책무입니다.

국회의원의 가슴에 단 배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고통과 분노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국민은 더욱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님께서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혀 주셨다는 소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 탄핵뿐입니다. 부디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진종오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언론은 진종오 의원님이 권총 대신 탄핵 반대의 총대를 맷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의 사격 영웅답게 윤석열 탄핵의 과녁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박정하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국회의원은 국민만 바라봐야 합니다.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기에 앞서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 계엄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헌법에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해 14일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선포한 계엄령은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됐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시민들과 충돌하는 등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장면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참수작전에 투입되는 정보사 특수작전부대 HID 정예요원까지 대기시켰습니다.

참수작전은 전시 또는 예방전쟁 성격의 작전에서 적의 수뇌부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띤 그러한 작전입니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모조리 적의 수뇌부로 본 것입니다.

특전사령관의 양심고백으로 윤석열의 직접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초 윤석열은 여당이라고 피아 구별할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불법계엄 자체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폭풍은 국내외에 걸쳐 정치·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며 문화산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여행업이 휘청거리고 영화계도 많게는 관객이 하루 12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특수를 맞아야 할 공연계조차도 사상 초유의 일 앞에서 현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피해는 내수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는 국가 이미지 향상과 경제성장의 주요 축이 돼 왔습니다만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표하며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한국 문화가 쌓아 온 국가호감도마저 흔들릴 지경입니다.

계엄 선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K-컬처의 과급력 있는 전파와 함께 문화선도국가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해당 위상은 한류 1세대부터 수십 년의 시간에 걸쳐서 쌓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며 아마 가까운 미래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문화를 진흥하고 선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책무를 가진 국회 문체 위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혼란을 하루라도 빠르게 문체위의 총력을 다하여 수습하는 일입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거듭된 야당의 탄핵 소추가 마치 국정 난맥을 초래해서 비상계엄에 이른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오늘 여야 간 기합의된 상임위 참석도 장관 포함 문체부 전체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토록 참담한 상황이건만 관련자들의 반성과 성찰도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책임자들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면서 주저할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이번 주에 진행될 탄핵 진행 표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당시 김건희 황제관람을 대통령실에서 문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주도했던 황성운 기조실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운 실장은 당시 행정관이었던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의 증언을 통해서 청와대 답사 및 행사 지원을 지시하였고 보고를 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에게도 직접 보고 또는 업무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통하여 김건희 여사의 국정 관여 상황이, 정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고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먼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유인촌 장관과 그리고 차관 이하 문체부

의 공직자들이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유인촌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이유로 어제 저녁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본인이 직접 언론 앞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국정감사도 같이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는 과정에서 장관의 합리성을 믿고 장관의 애국심을 믿어 왔는데 이런 내란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국민들의, 언론을 호도하는 이런 호소문을 발표한 것, 아무리 정부의 대표로 발표했다 하더라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내란선전죄라고 지적해 주신 박수현 위원님 지적대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2·3 내란 사건은 전시 상황도 아니었고 국가의 행정권과 사법권이 마비된 비상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선포 자체가 위법이었고 불법이었습니다. 분명한 내란 사건인데 이 내란 사건을 마치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였던 것처럼 포장한 이 호소문, 읽으면 읽을수록 분이 차오릅니다.

특히 야당의 거듭되는 탄핵으로 인해서, 감사원장 이하 검사들 또 몇몇 장관들이 탄핵 당한 일을 들어서 국정의 안정성을 야당이 훼손하고 있는 것인 양, 그래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깨지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한 이 호소문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차분한 법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기반해서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당을,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모든 세력을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으로 통칭해서 이번 군사 반란을 통해서 쓸어버리려고 했던 이들의 작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제 국방위에서 밝혀진 것들 중에 야당 의원들을 구금해서 병커1, 남태령 밑에 있는 병커1에 수감하려고 했다고 하는 방첩사 사령관의 검토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커1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커1은 대한민국이 전쟁 상황에서 1차 지휘를 하게 되는 정말로 보안시설입니다. 관악산 암반 지하 200m 밑에,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는 200m 토굴 안에 있는 것이 병커1입니다. 그곳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반대 세력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고, 어느 시간까지도 구금할지 모르는 그러한 역사적 죄를 짓는 일을 이들이 기획했던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12·3 군사 내란 사건이 그날 국회에 의해서 진압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햇볕 들어오지 않는 200m 암반 속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12·3 내란 사건 때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배현진 위원님 그리고 진종오 위원님과 함께 네팔 카트만두에서 네팔의 문화체육교통부장관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식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내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충격과 공포에 떨던 배현진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분들께서는……

저희가 호텔방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켜 놓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그리고 그로부터 3시간 반 후에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문명화된,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 돌아가면 윤석열의 헌정 유린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라고 분개하던 두 분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제가 위원님들 이름 불러 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이미 표결 참여를 밝혀 주신 배현진 위원님의 용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내란의 수괴입니다. 그를 징치하는 국회의 합법적인 탄핵 절차에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것처럼 영화발전기금이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이—내란 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호칭 뺍니다—돌발적으로 폐지를 선언한 부과금입니다.

윤석열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 돌발적으로 계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발기금 폐지 선언 역시도 돌발적이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정신 상태의 올바름 그리고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급한 점검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폐지 발언 역시도 상당히 돌발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체부는 여기에 대한 이성적 대응을 마련해야 하지만 폐지에 따른 대체재원, 대체자원, 둘 다 조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기금 전입 운용 자체가, 그 정도가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영화 관람에 따른 발전기금은 굉장히 중요한, 마치 영화계의 계엄령 선포하고도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합헌이라는 2007년 7월의 현재 판단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읽어 드리면 ‘영화 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예술 향유자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발전기금 지출 용도는 영화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여 기금 집행의 궁극적 이익이 관람객에게 돌아감.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합헌이다’라고 2008년 12월 7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이미 발의했습니다, 오늘 자로. 반헌법적인 영화계 발전기금 폐지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회 차원에서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라는 첫 번째 내용으로 위원장에게 호소합니다.

두 번째 내용 같이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3항이 뭐냐 하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언론과 출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 줍니다.

두 번째 항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문제인 건 오늘 안 온 문체부장관 유인촌 장관이 바로 이 언론과 출판 부문에 대한 주무부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하던 날 국무회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도 국민의 의무로서, 그리고 국무위원 의무로서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함에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소관 분야와 관련해 발생한, 그러니까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도 않은 채 오히려 어제 정부 대변인을 자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호소를 하기에 바빴다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와서 입장을 대변하지도, 설명을 하지도, 해명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한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회의에 불참했고 국무위원도 불참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불공정 사유에 대해서 여기서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던 국민의힘 위원입니까? 지금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들이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면서 어떻게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그럼으로 인해서 유인촌 장관은 내란 동조 및 직무유기 관련해서 고발 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인촌 장관은 자신의 직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민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2·3 내란 사태,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당분간 우리 상임위도 열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불법 쿠데타를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막아 주셨습니다. 온몸으로 계엄군의 총과 군홧발로부터 국회를 지켜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날 밤 국민의 명령에 따라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정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별씨 여드레째 시민들이 매일 국회 앞에 모입니다. 한목소리로 윤석열 탄핵을 외칩니다. 저는 이전과 다른 세 가지 특징을 봅니다.

첫 번째는 촛불이 아니라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동참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세계인들도 호기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형태의 집회를 체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셋째, 집회가 끝나면 주변 쓰레기도 치우고 질서 있게 대중교통을 타고 귀가합니다. K-컬처가 K-민주주의를 더 깊고 더 튼실하게 가꿔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시민들이고요, 국격을 증명하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문화가 뭐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어울리는 생활양식이자 체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부처 이름 앞에 붙은 그 문화가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국회 앞 시민들에게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무도한 검찰 독재에는 문화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인촌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변인이랍시고 내란을 두둔

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을 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문체부가 반현법적인 내란 범죄자들을 대변합니까? 참담하기 짹이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를 대변한다면 오늘 참석해서 어려운 상황을 수습할 의지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장관이 발표한 호소문을 보니까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자제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위헌 범죄집단이 헌법과 법률을 운운합니다.

자제를 보여 달라면서 입법부와 주권자 시민들을 협박하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라? 어디선가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가라앉는 배에 탄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세월호 선장 같은 느낌입니다.

어제 호소문 발표에서 유인촌 장관은 윤석열 내란 동조자임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호소문을 눈을 씻고 들여다 봐도 관광·문화예술산업이 이번 내란으로 입을 피해를 살피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업은 잊었고 위법한 권력에 굽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내란 동조자로 남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자 시민께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장관의 빠른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진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올해 사자성어가 ‘도량발호(跳梁跋扈)’,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수들이 도량발호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겠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도 제멋대로 날뛰고 있지만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제멋대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7일 윤석열 탄핵 표결에도 불참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국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의 주범이고 도량발호의 주체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중인에게 강제동행을 집행하듯이 법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강제출석이라도 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덕수, 한동훈이 법에도 없는 2인 국정 공동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이 나라 운영을 책임지겠다는데 정부 여당도 참석을 하지 않는 이 상임위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당 간사라도 들어와서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20일에도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단호하게 이 상황을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정부조직법상 정권 대변인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기 전에 출판·간행물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언론 자유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현 위원, 조계원 위원이 말씀하셨듯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을 선전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장관에 대해서 상임위 전체의 입장으로 고소고발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정희 사망 후에 전두환 계엄사가 보도검열단을 만들었습니다. 1979년 10월 27일부터 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 동안 언론 보도 27만 7000건을 검열했습니다. 아울러 933명의 기자를 해직했고요. 그다음에 언론 자유라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언론사 통폐합을 강제로 진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겪었던 1980년 12·12 친위 쿠데타 이후에 이 엄청난 검열과 기자 해직과 언론사 강제 폐간의 연속선상에서 이번 12·3 계엄을 우리는 쳐다보고 거기에 마땅한 대처를 했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외려 야당 탓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는 막중한 국민의 대표 영역에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내란공범으로, 내란 부역자로 내란을 여전히 선전 선동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촛불행동 집회에서 확인했던 동영상을 틀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예.

○양문석 위원 ‘내란공범 105인의 역적들’이라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피눈물 나는 이 위기 상황에,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날 새벽에 이 문제를 저지하지 못했다면 병커1이라는 데서 고문과 감금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이 현상에 대해서 여전히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발랄한 비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때 우리가 동영상을 틀 전례가 없어서 필요하면 20일 날 상임위가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위원장 생각입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양문석 위원 저는 그 전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임오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간사 간 협의하에 저희가 동영상도 PPT도 띄울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에서도, 그런데 지금 국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꼭 틀어야 되는 겁니까?

○양문석 위원 지금 국민들에게 이 장면을 저는 정말 보여 주고 싶고, 그리고……

○위원장 전재수 몇 분짜리지요?

○양문석 위원 4분짜리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4분을 다 틀어야 됩니까?

○양문석 위원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들을, 특히 내란공범 부역자들, 내란공범 방관자들, 내란을 선전 선동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원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여야 간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PPT부터 영상도 저희가 올릴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여야

합의하에서 해 왔는데 오늘은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이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위원장님이 그냥, 위원장님 권한으로 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말씀과 임오경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사실은 동영상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위원님 사이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전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권한으로 이 동영상을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0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0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박수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잠시 전에 제가 유인촌 장관이 정부 대변인으로서 읽었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겼는데 이제부터는 그 호소문이 어디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정부가 사과해야 할 것은 단지 국민의 고통과 혼란에 대해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범한 내란수괴죄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옳습니다.

어제 국방위 질의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광종근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이지요,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로 윤석열이 내란수괴임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됐는데 국민에게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는 이 한심한 정부 호소문,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가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든 이 대한민국의 체제, 이것은 바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든 것이므로 정부가 이런 헛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수정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다’라고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안가 모임에 참석해서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긴급체포를 당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경찰력을 국회에 투입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가 제 권능과 권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한 내란공모자입니다. 공범입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 보면 긴급체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중한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함께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새벽에 긴급체포를 당했습니다. 긴급체포를 당할 만큼 이렇게 중범죄를 범했는데 이것을 비상계엄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다음,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세웠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적시했으니 저도 예를 들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함으로써 감사원이 독립적·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사실조차도 망각한 자입니다.

전 정부 통계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죄가 났습니다만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한 자입니다. 감사원의 독립과 중립을 현저하게 어지럽힌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적 의혹을 샀던 대통령실의 관저 공사, 그것을 21그램이라고 하는 그 작은 회사에 왜 맡겼고 거기에 김건희 관련성이 있는가가 국민적 의혹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등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망발을 한 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에 있는 초호화 스크린 골프장으로 의심받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고라고 이야기했던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눈감기로 감사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가 당연히 탄핵소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를 탄핵소추함으로써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야당을 비난하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다음,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지금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을 가져온 것은 누구입니까? 이런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한 야당입니까, 아니면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입니까? 어디다 대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합니까?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을 가져온 것, 김용현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가 들어갔을 때 중국 군대가 바로 압록강 너머 단둥에 집결했다는 그런 정보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북한이 이 무인기 투입에 대해서 반응했다면 바로 국지전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군대가 즉시 개입하고 러시아가 자동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바로 한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뻔한 그런 위험천만한 이런 사실들, 이것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을 주는 것입니다. 어디다 대고 이런 못된 장관들을 공석으로 만드는 탄핵소추에 대해서 국민의 일상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합니까?

또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의 신뢰를 유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각한 오판이다라고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대로 된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그런 탄핵을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미국 공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3일 동안에 날아간 주식 시총 총액만 해도 144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은 1470원을 찍은 바가 됐습니다. 이 환율 1400원대는 도저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이고 이 고환율은 바로 우리 원화 가치를 급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를 고물가에 이르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민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미국의 포브스지는 이 계엄과 탄핵 부결의 대가를 5100만 한국 국민이 앞으로 나누어 갚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 시대 국민을 구한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궤변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까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지 비상계엄으로 중단된 헌정을 탄핵을 통해서, 헌법이 보장한 유일한 수단인 탄핵을 통해서 이 비정상화된 헌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헌정 중단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이 헌정중단이라는 궤변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중단시킨 대한민국의 이 헌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정부가 발표한 허위와 기만과 몰염치로 가득한 이 뻔뻔한 호소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 기록을 속기록에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 긴급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KTV가 12월 3일 저녁 밤 11시에 대통.....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표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가 사전 준비를 했는지, 그랬다면 이게 내란에 동조한 혹은 내란 공동정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KTV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진 한번 올려 보십시오. 사진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라이브로 11시에 진행이 됐는데 저게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KTV가 이미 계엄 발표 사실을, 비상계엄 발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협조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좀 해 보니까.....

다음 저희 현안질의 때 보도책임자하고 제작책임자를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KTV는 공무원 조직이라서 정규방송이 끝나면 모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으면 KTV는 거의 사람이, 직원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MBC도 MBN도 제때 준비하지 못한 계엄 방송을 KTV가 11시부터 진행자까지 준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특보 546호로 편성을 했는데요. 어떤 계기로 누가 방송을 준비하고 실제 실행을 했는지 이 과정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KTV 특성상 사전 정보나 사전에 연락이 없었다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당일 방송의 주체는 보도부였고 진행자는 제작부 소속이었습니다.

다시 그 사진 한번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진행자 사진을 좀 올려 주십시오.

결국 소집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KTV에서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특보 546회로 시작을 했는데 국회의 긴박한 상황이 한 3시간쯤 지나고 나서, 아무 상황도 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클로징 멘트에 이것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KTV가 다른 방송보다, 다른 방송은 준비하지 못한 라이브로 계엄 방송을 하게 됐는지 이 상황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부와 영상부의 카메라 지원 없이 생방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벌써 여러 시간 전부터 혹은 며칠 전부터 일지 알 수 없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방송을 준비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소집 지시를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게 최재혁 비서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2년 가을에 KTV 정책관으로 왔다가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있는데 당시에 이 사람이 올 때도 직제상 정규 티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해서 왔고 이 전문임기제 가급 기획관이 전체 부서를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짜여졌거든요.

그래서 KTV는 어떻게 해서 12월 3일 저녁 밤 11시에 계엄 발표하는 방송을 라이브로 할 수 있었는가. 누가 준비하고 누가 연락하고 누가 진행했고 어떻게 준비를 누가 명령했는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 남아 있을 겁니다. 다음번 현안질의할 때 이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긴급 현안질의 관련한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지막 순서로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임오경 위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 불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민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원래는 콘진원과 GKL, 관광공사, 산하 기관장들은 오셨었습니다, 출석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다는 KTV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정부 장차관, 공무원들 다 출석하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콘진원, GKL, 관광공사 기관장들은 출석을 했고 KTV는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감기관들이 출석을 했지만 정부 측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다시 돌려보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2월 3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에 있어서 감사한 부분은 꼭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공포,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무서웠지만 한 번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보다 우리 국회의원들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지켜 준 보좌관 또 당직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저 또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제서 입 밖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서웠지만 국민들 생각하느라고 함부로 뱉지 못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저 또한 12월 3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서 평생 잊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엄중한 상황임에도 지난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습을 보면 저는 같은 나라 국회의원이 아닌 것 같은 참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문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는 함께 체포될 뻔했던 같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다른 모든 이념적 차이는 배제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충부리를 겨눴던 그날의 공포와 국회 유린을 기억하시고 불법 계엄 한 가지만을 생각하셔서 14일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자리에 불출석한 유인촌 장관 이하 문체부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들이 장차관에 임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라고 임명된 것입니까? 국민에게 충성하고 현장의 문화·예술·체육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라고 임명된 것 아닙니까?

나라 경제는 환율 폭등, 주가 폭락, 내수의 위축으로 빨간불이 켜졌고 특히 사상 초유의 여행위험국 지정으로 인해 여행업계, 항공업계는 주가가 폭락하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하루빨리 국회와 대책을 논의하여 국민들을 위기에서 구해야 할 때인데도 장차관 이하 공무원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상임위 출석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대변인 자격이라는 유인촌 장관은 우방국 신뢰를 운운하며 탄핵을 자제하자며 내란수괴에 부역하는 성명이나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행동입니까?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 129조에 따라 오는 12월 20일 현안질의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 상정해 주시고 오늘 불출석한 문체부 장차관 및 공무원들에 대해 중인으로 채택해 주셔서 당일에 출석하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 대변인 역할로 유인촌 장관이 브리핑한 말씀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인촌 장관, 누구 때문에 이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술

만 먹고 출퇴근은 빈 자동차 운행시키고…… 지금 누구 빼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입 다물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헌법 누가 위반했습니까? 헌법과 법률 누가 위반했습니까? 야당 대표 3년 동안 400회에 가까운 압수수색, 보기조차 징그럽습니다. 아무리, 검사 200명이 넘는 사람이 붙어서 한 가지 잡아 보려고 해도 어떤 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 헌법과 법률 다 위반해 가면서 자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주가 조작, 파우치, 선거 개입, 모든 게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검찰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보고했다고, 이 사람들이 공석일 경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장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이석했습니다. 얼마나 국회를, 입법기관을 무시했으면 말 한마디도 없이 자리를 이석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번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얼마나 입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입법기관, 국회를 무시하고, 의장과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리를 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옹호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포함하여 대한민국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 모두 공석이 되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염려를 토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태원 참사, 159명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이상민 장관 뭐 했습니까? 그때 그렇게 사퇴하라고 해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해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진 사퇴해서 그거를 대통령이 수락해 줍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윤석열의 오른팔이 맞구나……

자기 사람 살리기 위해서 김용현, 이상민 사퇴 수리해 줬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장관이 무슨 낫짝으로 버티고 있는지 진짜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뻔뻔한 낫짝으로 버텨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그 사표 처리를 바로 해 줘요. 자기 사람 살리자는 것으로밖에 저는 느낄 수 없고요.

유인촌 장관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른팔이 아니고 왼팔도 아니고 뒷팔도 아니고 앞팔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계엄령, 이 비상 사태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죽든 말든, 국민에게 손가락을 당하든 말든 관심 없는 기관장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라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씀하셔야지요.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세워 준 겁니다. 어디 우리라는 말을 감히 함부로 브리핑에서 말씀하십니까? 정정하시기 바라고요.

지혜와 자제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지혜와 자제를 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지혜와 자제를 보여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었고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디다 감히 지혜와

자제를 보여 달라고 그런 막말을 하십니까? 내란 부역자들을 두둔한 유인촌 장관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12월 20일 날 저희가 중인 출석으로 현안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유인촌 장관님, 사퇴하시고 사표 처리 대통령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12월 20일 날 장관으로서 출석 안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마지막으로 양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중인 채택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현안질의 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중인 채택 요구합니다. 정몽규가 회장 4선 연임의 입장을 밝혔고 오늘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에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몽규의 연임 가능 여부와 관련된 심사가 있습니다.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들이 또다시 국민들의 의사를 배반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이 그만두고 나가라고 정 씨 일가와 그리고 정몽규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4선 도전을 꿈꾸며 이 혼란한 시기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신청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내란 상황에서 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숨어서 혼란을 틈타 이러한 못된 작태를 부리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정몽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전원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반드시 중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양문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요청사항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좀 다르므로 양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2차적으로 다시 한번 그거는 논의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간사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영화인들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 예산은 600억 원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 예산안 통과 시 예산부수법안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폐지가 통과된 부분에 있어서 영화인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한 말씀 드립니다.

이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안에 대한 기술적인 절차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화발전 부과금 존속이 민주당의 당론임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저희 문체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문체위 법안심사가 개시되는 대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존속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상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행을 자제하는 이런 상

황입니다. 굉장히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응당 우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증이라든지 고소고발과 관련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형배 위원님 다음 긴급 현안질의 때 증인 추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반영을 해서 추후 의사일정을 통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문석 위원님 정몽규 회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다음에 다음번에 긴급 현안질의를 할 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행 자제국으로 지정되는 문제 또 관광업계 타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 때문에 사안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 증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사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임오경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1시36분)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께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의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박수현 위원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 의사일정 변경 규정에 따라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해서 의사일정 제1항보다 먼저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37분)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 예정인 긴급 현안질의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29조제1항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증인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용호성 제1차관, 장미란 제2차관 및 소관 실국장,

관계 소속기관 및 담당자 등 총 19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20일로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위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질의의 건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19인)

성명	직책	신문요지	출석일	비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2024. 12. 20.(금)	
김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관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채수희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정책관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김근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성명	직책	신문요지	출석일	비고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리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계엄 이후 관광산업, K-콘텐츠 피해 관련 대책		
박준석	한국정책방송원 보도부장	KTV특보(546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방영 관련		
이승훈	한국정책방송원 제작부장	KTV특보(546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방영 관련		
이찬구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장	KTV특보(546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방영 관련		
이성구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획관	KTV특보(546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방영 관련		

○출석 위원(10인)

강유정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조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

【보고사항】

○의안 회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5)

이상 3건 11월 25일 회부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3)

이상 2건 11월 26일 회부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6)

11월 27일 회부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이상 6건 11월 28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1)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2024. 11. 28.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0)

이상 2건 11월 29일 회부됨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2024. 12. 2.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9)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2024. 12. 2.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2)

이상 2건 12월 3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0)

12월 4일 회부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5)

12월 6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

12월 9일 회부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3)

12월 1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불법온라인사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3.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6)

12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안 철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2024. 11. 28.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0)

12월 2일 발의자 철회 요구

○통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9)

12월 2일 철회 통지가 있었음